

‘3경기 무패 마감’ 광주FC, 수원 이적생 활약에 역전패

광주, 선제골 넣고도 골키퍼 김경민의 자책골로 1-2 패
‘3연승 도전’ 전남, 후반 3골 넣었지만 수원삼성에 3-4 패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의 연승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광주FC는 지난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5 22라운드 경기에서 1-2 패를 기록했다.
선제골은 광주가 기록했지만 승리는 수원FC의 차지가 됐다.
0-0으로 맞선 후반 중반 비디오 판독으로 두 팀의 표정이 달라졌다.
후반 25분 광주 진영에서 발생한 상황을 놓고 주심이 온 필드 리뷰에 나섰다.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간 변준수가 수원FC 싸박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어깨로 상대를 미는 모습이 나왔다. 반칙이 선언되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린 광주는 6분 뒤 주심의 판정에 웃었다.
수원 페널티지역에 있던 진시우가 이강현이 올린 공을 향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다. 이후 공이 공중볼 경합을 벌이던 상대 이재원의 왼손에 맞는 장면이 나왔고, 온 필드 리뷰 끝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퍼로 나선 아사니가 매서운 슈팅으로 골대 왼쪽 상단을 뚫으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아사니의 시즌 7호골.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수원FC 편이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FC서울에서 수원FC로 이적한 율리안이 후반 35분 오른쪽으로 ‘옛 친정’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후반 44분에는 아쉬운 자책골이 나왔다. 오른쪽에서 안드리고의 슈팅이 나왔고, 골키퍼 김경민이 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김경민 손에 맞은 공이 뒤로 바운드 돼 광주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자책골로 리드를 내준 광주는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1-2패를 기록했다. 지난 20라운드 FC 안

양전 2-1 승리를 이어 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했다.
3연승에 도전했던 전남은 수원삼성과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패했다.
전남은 19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K리그2 2025 21라운드 홈경기에서 3-4로 졌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전남 골대가 뚫렸다. 문전에서 일류첸코에게 공을 넘겨받은 수원 김지현이 오른발로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김지현은 전반 28분에는 도움을 올렸다. 중앙에서 공을 잡은 김지현이 뒤에서 쇄도하던 파울리노에게 공을 넘겼다. 파울리노는 오른발로 수원의 두 번째 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후반 6분 일류첸코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후반 17분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또다시 실점했다. 김지현이 키커로 나서 멀티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전남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후반 23분 하남이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0의 점수를 켜들. 하지만 4분 뒤 전남의 실점이 기록됐다. 성남FC에서 이적한 박지원이 교체 멤버로 들어왔고, 투입 1분도 되지 않아 골을 장식했다.
1-4에서 전남은 끝까지 공세를 펼쳤다.
후반 31분 하남이 멀티골을 기록했다. 하남이 볼경합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공이 뒤로 흘렀다. 공을 잡은 발디비아의 슈팅이 이어졌고, 넘어져 있던 하남의 발에 맞은 공이 그대로 골대로 향했다.
9분의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얻어낸 전남이 발디비아의 골로 1점 차로 추격을 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3-4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아사니가 지난 18일 수원FC와의 K리그1 2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MLS 진출’ 미네소타 정호연,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지난 2월 광주FC서 이적

미국 도전에 나섰던 정호연의 첫 시즌이 부상으로 일찍 마무리됐다.
지난 2월 광주FC에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미드필더 정호연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미네소타 구단은 20일 “정호연이 지난 7일 홀슈타인 킬(독일)과의 친선 경기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부상을 당했다”며 “18일 수술을 받았으며 잔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수술 소식을 전했다.
금고에서 ‘주장’으로 활약했던 정호연은 단국대를 거쳐 2022시즌 광주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데뷔 시즌 K리그2에서 36경기를 뛰며 광주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그는 2023시즌에는 K리그1에서 전기를 발휘했다.
‘이정호 황태자’로 꼽힌 그는 34경기에 나와 2

골 4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3위를 이끌고, 영플레이어상 트로피를 차지했다.
정호연은 이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서 금메달의 주역으로도 활약했다.
지난 시즌에도 광주의 살림꾼 역할을 맡아 K리그1에서 36경기 출전, 5도움의 활약을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뚝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2차전 대표팀에 소집되면서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정호연은 광주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2월 미네소타와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통해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은 그는 이번 시즌 MLS에서 4경기에 나와 86분을 소화했고, US오픈 컵대회 2경기에 출전했다.
미국 첫해 많은 경기에서 나가지 못했던 정호연은 부상까지 당하면서 아쉽게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호연의 부상 소식을 전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전남당구연맹 서서아가 지난 14~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프레데터 PBC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10볼 오픈’ 여자부에 출전해 경기를 하고 있다. <PBC 페이스북 캡처>

전남 당구 서서아, 인도네시아 10볼 오픈 우승

3년 연속 세계 제패

국내 여자 포켓볼 1인자 서서아(전남당구연맹·세계랭킹 7위)가 3년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에 따르면 서서아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끝난 ‘2025 프레데터 PBC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10볼 오픈’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신에 장무안(세계랭킹 139위)을 2-0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2023 라스베이거스 오픈, 2024 전일본선수권에서 대회 정상에 올랐던 서서아는 3년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달성하고 1만8000달러(약 2500만원)

의 우승 상금을 챙겼다.
서서아는 남원 전국당구선수권 대회 ‘3연패’를 포기하고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따돌리면서 우승을 이뤘다.
특히 준결승에서 만난 필리핀의 체즈카 센데노(세계 9위)를 상대로 설욕전에도 성공했다.
서서아는 지난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10볼 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체즈카 센데노에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었다.
서석현 전남도당구연맹 회장은 “서서아 선수의 우승은 전남 당구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유망 선수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약속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권익보호 순회교육

스포츠 인권·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전남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박정현)가 인권의식 증진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2025 전라남도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된 이번 교

육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등 전남 내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이뤄졌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항장애인체육회 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선수, 취업 선수, 지도자, 사군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스포츠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18개 사·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들과 ‘스포츠권익보호 평가회’를 열고 교육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교육과 평가회의를 통해 장애인체육 현장의 인권감수성이 더욱 높아질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전 인권 사고 예방,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법정의무교육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교육 사업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